

요약

제3차 보험사기 대응 국제회의(GIFS)는 최근 보험사기 추이, 보험사기 대응 현황, 데이터분석 기술의 보험사기 적용과 관련된 규제 시사점, 의료사기 방지 협력 사례 등을 공유함. 다양한 발표와 토론에서 공·사, 회사 간 협력의 중요성과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지적되었음.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와 코로나19 검사 사기가 증가했는데, 사기적발에 기관 간의 협조, 데이터 공유, 데이터분석 기술이 큰 역할을 수행함. 한편 데이터분석 기술 활용 확대와 함께, 데이터 윤리에 관한 국제적 협력과 기술을 사용하는 금융회사 전 구성원의 데이터 이해력 강화 필요성이 지적됨

- 2021년 11월 개최된 3차 ‘보험사기 대응 국제회의(Global Insurance Fraud Summit, 이하, ‘GIFS’라 함)’에서는 35개국 54명의 발표자가 참여하여 최근 보험사기 추이, 보험사기 대응 현황, 데이터분석 기술의 보험사기 적용과 관련된 규제 시사점, 의료사기 방지 협력 사례 등을 공유함¹⁾
 - 2021년 GIFS에서는 국가별 업데이트 외에 국경 간 보험사기 동향을 비롯하여 각국 보험사기 대응기관들로 구성된 패널토론, 데이터분석 관련 규제 패널토론, 미국 의료사기 관련 패널토론 등이 진행됨
- 국경 간 보험사기 유형과 범위, 보험사기 대응 상의 장애요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²⁾,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자동차 허위사고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경 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AI 및 데이터분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최근 적발된 국경 간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조직범죄로 이루어진 자동차 허위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의료사기와 도난차량 관련 보험사기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조사됨
 - 국경 간 보험사기 감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수단으로는 국제 보험사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국경 간 보험사기 방지에 가장 도움이 될 기술로서는 보험사기 활동 인지를 위한 AI와 데이터분석을 우선순위로 응답하였으며, 국경 간 보험사기 방지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및 고객데이터 공유를 꼽음
 - 한편 아직까지 보험회사들은 국경 간 보험사기를 우선순위로 고려하지는 않고 있으나, 향후 국경 간 보험사기의 영

1) 1회와 2회 GIFS는 영국의 국방, 정보보안, 항공우주 관련 기업인 BAE Systems가 NICB(National Insurance Crime Bureau), CAIF(Coalition Against Insurance Fraud), IASIU(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pecial Investigation Unit)와 함께 주최하였으나, 3회부터 BAE Systems 대신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Protiviti가 주최하고 협력단체도 기존 협력단체 이외에 IBM, 프랑스 보험사기 대응기관인 ALFA(Agence de Lutte Contre la Fraud a l'Assurance), 디지털 전략 및 소프트웨어 기술 회사인 Luxoft 등 협력단체가 추가됨

2) 설문조사는 민간 보험사기 방지 단체인 CAIF(Coalition against Insurance Fraud)이 2021년 7월부터 두 달간 진행하였으며, 33개국에서 271명이 답변하였음

향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었음³⁾

○ 보험사기 대응기관 패널토론에서는 미국, 영국, 스웨덴의 대표적인 보험사기 대응기관 소개, 코로나19 이후 보험사기 동향, 보험사기 방지 분야에서 데이터분석 활용 현황 등이 논의됨⁴⁾

- 미국에서는 주 보험청이나 주 법무부 및 검찰청 산하에 보험사기 전담부서를 두고 있고, 영국은 사적기관인 IFB가 보험산업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개별 보험회사 중심으로 보험사기 방지가 이루어지는 등 국가별로 보험사기 대응기관은 다양한 형태를 가짐
 - 메사추세츠 주 보험사기 전담부서는 법집행기관이면서 형사사법기관으로서 수사권과 형소추권을 갖고 있으며, 보험사기 전담부서 중 가장 규모가 큰 캘리포니아 주 보험사기 전담부서는 법집행기관으로서 수사권을 갖고 있음
-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전체적인 보험사기 발생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원격의료(Telemedicine) 관련 사기가 증가하였음
 - 전문가들은 보험사기 발생추이에 큰 변화가 없었던 이유로 정부보조금이 경제적 타격을 경감시켰기 때문으로 추정하며, 정부보조금의 효과가 감소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보험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진단함
- 데이터분석 기술은 보험사기 수사속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보험사기 전담부서 내에 컴퓨터 포렌식 분석 인력(Computer Forensic Analyst)을 두고 있음

○ 보험사기 규제 패널토론에서는 AI와 머신러닝 등 고급 데이터분석과 데이터 윤리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데이터 윤리에 관한 국제적 협력과 데이터분석 기술을 사용하는 금융회사 내 전 구성원의 데이터 이해력 강화 필요성이 지적됨⁵⁾

- 보험회사들도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등 광범위한 업무분야에 AI나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있으나, 데이터 편향이나 상관관계 해석오류 등으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데이터 윤리 강화와 AI나 머신러닝 관련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됨
- EU는 AI 개발자나 사용자에게 AI의 활용에 대한 명확한 요건과 의무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4월 AI규제 초안을 발표한 바 있음⁶⁾
 - 미국 콜로라도 주는 보험회사가 외부 소비자데이터 및 정보 원천, 알고리즘, 예측모형을 사용하여 개인의 인종, 피부색, 국가나 민족적 출신, 종교, 성, 성적 성향, 장애 등에 기초한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함(2021년)⁷⁾

3) CAIF(2021), *Globalization of Insurance Fraud Study*

4) Anthony DiPaolo(Insurance Fraud Bureau of Massachusetts), Ben Fletcher(IFB), Michelle Rafeld(Ohio Department of Insurance), Eric Charlick(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 Ann Hassel(If Insurance)가 참여함

5) Matthew Smith(CAIF), Holly Armitage(BAE Sytems), Shaheen Dil(Protiviti), Micheal Conway(Commissioner of Insurance, Colorado), Francesca Rossi(IBM Research)가 패널로 참여함

6) 이에 앞서 EU의 AI 전략의 일환으로 2018년에 구성된 EU의 AI 고위전문가그룹(AI HLEG: High-level Expert Group on Artificial Intelligence)은 2019년에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윤리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음

<https://ec.europa.eu/futurium/en/ai-alliance-consultation.1.html>

7) <https://leg.colorado.gov/bills/sb21-169>

- 한편 국가별로 상이한 데이터 윤리 규제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지역 간 이동가능성을 고려할 때 국제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 독립적인 감사체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함
- 아울러 회사의 데이터 윤리 준수를 위해서는 데이터분석 전문가뿐만 아니라 회사 모든 구성원의 데이터 이해력 강화, 조직 내 데이터 활용문화의 변화, 데이터 집적·사용 등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의료사기 패널⁸⁾에서는 의료사기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최근 증가한 의료사기 유형에 대해서도 논의함⁹⁾

-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의료 사기, 유전자검사 사기, 코로나19 테스트 사기, 개인보호용구(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관련 사기가 증가하였음
- 원격의료 사기는 의료기기 회사가 불필요한 의료기기를 불법적인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고 보험금으로 처리하는 수법을 쓰거나, 환자에게 보험이 보장하는 무료 서비스라고 설명한 후, 설명하지 않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법을 쓰기도 함
-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보호복 등 감염차단 개인보호용구를 제공하는 대신 숨겨진 부가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도 있었음

○ 보험사기 대응 국제회의(GIFS)를 통해 보험사기 방지에 있어서 공·사, 회사 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데이터분석 기술이 보험사기 대응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국내에서도 데이터분석 활용에 있어서는 유사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보험사기 및 건강보험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데이터 공유 등 공·사보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국경 간 보험사기 가능성 대비를 위해 해외 보험사기 동향 파악 및 정보교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공·사보험 협의체를 통해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공·사 건강보험 데이터 공유와 분석,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함
- 최근 국내 보험회사들도 보험사기 방지와 적발에 AI나 머신러닝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적발 효율성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¹⁰⁾ 보험회사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암호화된 데이터상에서 안전한 분석과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데이터연산 기술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세계적으로 데이터 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데이터분석 기술을 도입 시 시스템 투명성이나 AI 시스템 리스크를 신중히 고려하고 관리해야 할 것임

8) 동 패널 토론은 미국 HFPP(Healthcare Fraud Prevention Partnership), 보건복지부 급여조사국(OIG: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NICB의 의료사기대책반(Medical Fraud Taskforce), 의료사기 방지서비스 제공회사 등이 참여하였으며, HFPP(Healthcare Fraud Prevention Partnership)는 연방 및 주 정부, 사법당국, 민영 건강보험회사, 의료사기 방지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사기 방지 공·사 협의체이며, 특히 공·사 공유 데이터를 바탕으로 AI와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의료사기 적발과 방지역량을 제고하고 있음

9) 동 패널토론에는 Dan Kreitman(HFPP), Trinidad Navarro(Insurance Commissioner, Delaware), Ronald Michel(NICB), Jala Attia(Integrity Advantage), Gary Cantrell(Office of Inspector General) 등이 참여함

10) 현대해상의 자동차 고의사고, 의료기관 불법행위 탐지시스템, KB손해보험의 K-FDS 통합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K-SMS), DB손해보험의 DB-T 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됨